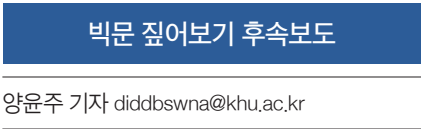


# 빅문 일부 개선 ... 여전히 남은 문제도



# ‘빅뱅에서 문명까지’(빅문)는 제1의 중핵 ‘인간의 가치탐색’과 제2의 중핵 ‘우리가 사는 세계’에 이어 2016학년도 1학기부터 도입된 제3의 중핵교과이다. 우리신문은 지난학기 총 5회에 걸쳐 ‘빅뱅에서 문명까지 짚어보기’ 연재 기획을 통해 빅문의 문제점과 지향점을 살펴봤다. 2학기를 맞아 이번학기 빅문의 개선 및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017학년도 1학기 대비 이번 학기 빅뱅에서 문명까지(빅문)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한 강의자료 통일’, ‘강의 간 연결고리 확보’, ‘호명식 출결’, ‘외국인 전용강의 개설’ 등이다. 이들 변경사항은 지난 ‘빅뱅에서 문명까지 짚어보기’ 연재에서 제시한 큰 3가지 문제점인 ‘팀티칭’, ‘평가방식’, ‘과도한 수강인원’의 보완책으로, 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교재 미비’와 ‘온라인 강의 제작 연기’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 통일된 강의자료

### 평가문제 일부 해결

‘특정계열에 유리한 평가방식’은 우리신문이 지난 학기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이 체감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혔던 바 있다. 팀티칭으로 인해 수업 별로 통일된 내용을 배운다는 느낌이 희박한데 비해 학생들이 속한 수업과 상관없이 학년별로 시험 장소를 재배정받아 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르는데서 오는 문제였다. 이번 학기 빅문의 시험방식은 ‘외국인 전용강의’를 제외하면 지난 학기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통일된 강의자료를 배부하기에 이러한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빅문 교수들은 이전 학기까지 강의 자료를 KLAS를 통해 배포했다. 이 때 강의한 자료와 KLAS에 업로드된 자료가 달라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심지어 각 수업마다 다른 강의자료가 업로드 되자 학생들 사이에서는 ‘시험에 배우지 않은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풍문이 돌기도 했다. 더불어 제각기 다른 강의자료에 시험범위 조차도 확



실효가 없었다. 이번 학기부터 빅문의 모든 강의 자료는 하나로 통일되어 하나의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된다. 학생들은 오리엔테이션시간에 드라이브 링크를 전달받는다. 빅문 기획에 참여한 권영균(물리학과) 교수는 “KLAS는 각 담당 교수 1명만 업로드가 가능해 교수도, 학생도 힘들었다”며 “통일된 하나의 폴더를 만들자는 아이디어에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팀티칭’ 역시 학생들이 꼽은 문제였다. 빅문 교수진들은 “빅문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등 다양한 과학분야를 포괄하기 때문에 각각의 전문가들이 해당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강의별 연결고리 부재와 강의평가 시 팀티칭으로 인해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교수, 학생 양측 모두의 불만을 자아냈다. 이번학기 빅문은 강의 진행방식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이 점을 보완했다. 권영균 교수는 “강의 순서를 조정해 물리를 앞쪽으로 한꺼번에 배치해 교수가 바뀌는 것

을 최소화했다”며 “각 분야 교수님들이 이전 수업 때 다뤘던 분야를 다시 짚어주고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강의평가 문제 여전

### 출석은 결국 호명으로

강의평가로 인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교무처 측은 “강의평가를 교수 개개인에 주려면 의학계열 학생들의 경우 한 과목에 10명이 넘는 교수들을 평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양측을 모두 고려해야 해 곤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빅문 PD 공우석(지리학과) 교수는 “강의평가는 승진이나 재임용을 받아야 하는 교수에게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다”며 “팀티칭임에도 하나의 강의로 평가되다 보니 교수 개개인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학생 입장에서조차 마찬가지다. 김나래(언론정보학 2016) 씨는 “가르친 교수에 대한 의견이 해당 교수에게 잘 전달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수업마다 사진을 찍어 조교가 일일이 지정좌석과 대조하던 ‘출결방식’은 표류 끝에 결국 ‘호명식’으로 바뀌었다. 빅문PD 공우석 교수는 “처음부터 호명을 생각 안한 것은 아니지만 80명을 호명하는 10분, 15분이 아까워 다른 방법을 모색한 것”이라며 “결국 별다른 수단이 없어 이번 학기부터 호명으로 출결을 체크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기 빅문을 수강 중인 김동현(사회학 2016) 씨는 “빅문을 포함해 다른 대형강의도 많은데 학교에서 효율적인 출결방식을 마련해주지 않는 것은 엄연한 학습권 침해”라고 말했다.

그 밖에 주목할 만한 변화는 ‘외국인유학생전용강의’가 생겼다는 것이다. 다른 중핵과목과 달리 외국인 유학생 전용강좌가 없던 빅문은 유학생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유학생 켈리(무역학과 2016) 씨는 “친구들로부터 빅문이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과학이라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이를 한국어로

듣고, 한국인들과 경쟁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수강신청 자체도 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권영균 교수는 “이번에 열린 외국인유학생전용강의는 한 명의 교수가 한 수업을 진행한다”며 “난이도도 조금 더 쉽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를 수강 중인 유태호(경영학 2016) 씨는 “동영상을 많이 보여주셔서 이해하기 편하다”며 “외국인유학생전용강의가 더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교재 제작·온라인 강의는

### 제자리 걸음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지만 여전히 ‘교재 제작’과 ‘온라인 강의 제작’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양 캠퍼스 모두 사용할 동일한 주교재를 만드는 일은 1년 째 제자리걸음이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사용될 ‘부교재’의 완성을 앞두고 있다. 그간의 강의자료와 강의를 녹취, 정리해 만든 ‘부교재’는 참고도서 겸 수업보조 자료로 활용된다.

공우석 교수는 “주교재의 경우 기존 중핵 교재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후마니타스칼리지 이영준 학장은 “교재 제작에 필요한 지원은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며 “빅문 참여 교수님들의 원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온라인 강의 제작은 마비상태다. 당초 빅문 온라인 강의는 대외적으로 우리학교를 빛낼만한 ‘명품강의’가 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이는 물거품이나 마찬가지다. 교수학습지원처와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기로 했으나 이번 학기에는 시행 계획이 없다. 교수학습지원처와 제작에 돌입한다고 하더라도 빅문 교수진이 요구했던 ‘외국인 학생을 위한 영어, 중국어 자막이 지원되는 온라인 강의’의 개설은 힘들어 보인다. 교수학습지원처 유승현 계장은 “한국어로 자막을 작성하더라도 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청구된다”며 “다 만들어진 강의에 자막을 얹혀 다시 만드는 비용까지 나온다”고 밝혔다. 빅문 PD 공우석 교수는 “아직 온라인 강의를 외국인에게만 제공할지 내국인에게도 제공할지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2017-2학기 취·창업스쿨 안내

취업진로지원처에서는 학생들의 사회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기업체 현직에 종사하거나 채용 관련 전문직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교수 및 강사로 초청하여 16주과정의 정규강좌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개설 목적

- 전공 외에 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인재상과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내용을 알려준다.
- 원하는 기업과 사회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를 교수나 강사로 초빙하여 학기동안 집중적으로 채용관련 직무와 준비해야 할 내용을 알려준다.

### ● 운영

- 교과목당 학점은 2학점이며 한 학기에 1과목만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 학기당 수강 가능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P, N로 기록하되 최초로 취득한 2학점만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 (이후 수강 강좌는 0학점으로 표기한다)
- 2017-2학기부터 취업스쿨을 취·창업스쿨로 과목명 변경하여 운영

### ● 취·창업스쿨 좋은 점

- 내가 원하는 취업분야에 대한 전체 준비과정을 한 학기동안 배우고 실습한다.
- 따로 외부 컨설팅을 받거나 전문가관에 수강료를 내고 코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관련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 직무분석에서 자기소개서작성, 면접요령까지 풀코스 코치해 준다.
- 전공분야 취업은 물론 비전공 관심분야에 대해서도 자세한 입사방법을 알 수 있다.
- 취·창업스쿨은 학년 구별 없이 수강 가능하나 1-2학년 때 1회, 3-4학년 때 1회 수강하면 스스로 취업준비를 끝내는 셈이다. 졸업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하고 수강 기회를 갖는다.

### ● 2017-2학기 취·창업스쿨 강좌 현황

과목	교수	주요내용
취·창업스쿨 (공학분야)	임상진 (에이피씨대표) 목 16:30~18:20 최영복(엔텔스 대표) 화 13:30~15:20	-공학계열 분야의 직무분석과 필요역량 이해 -공학계열 분야 기업별 채용기준과 핵심역량 분석 -기업별 자기소개서와 인성적성 준비방법 및 면접(PT, 토론, 인성) -그룹 면접 코칭을 통한 피드백 -해당분야 취업을 위한 전략수립
취·창업스쿨 (전자정보분야)	박종현 (에이피씨팀장) 금 10:00~11:50	-전자정보산업의 다양한 직무의 이해를 통한 올바른 진로설계 -효율적인 구직활동에 필요한 취업전략, 준비사항을 습득 -성공적인 멘토(동문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사회진출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 -취업 정보활용법, 산업(기업) 및 목표 직무 분석
취·창업스쿨 (응용과학분야)	김인수 (TTS카리어그룹 대표) 월 12:00~1:30	-현대 사회의 인재상과 핵심 요구역량 이해 -취업 기업 및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취업전략 -성공적 취업을 위한 역량강화 시스템 구축(자기소개서, 면접, Special Activities 등) -멘토링을 통한 취업진보체계 구축 -응용과학분야 전문가 특강
취·창업스쿨 (인생/재업/화장품분야)	유재호 (PLA인생리빙 대표) 월 09:00~10:50	-생명/재업/화장품 산업에 대한 이해 및 우수 기업 Review -각 산업별 직무에 대한 이해 및 필요 역량 준비방법 -그룹 진로코칭 및 자기소개서 작성 -NCS기반 해당 산업 입사를 위한 취업전략 수립 -해당분야 전문가 초청특강
취·창업스쿨 (외국계분야)	조창현 (AMROP코리아 전무) 금 10:00~11:50	-외국계 기업 Snapshot(외국계 기업 특성 이해 및 세부 탐색 -외국계 기업이 선호하는 인재조건 -외국계 기업 입사준비(영문자기소개서, 영문이력서 작성및 가이드, 인터뷰 전략 수립, 모의면접) -외국계 기업 진·현직 인사 초청특강
취·창업스쿨 (예술분야)	윤의환 (보성컬러주예술타인팅활성사업) 목 14:00~15:50	-예술분야(공예창작, 공연 등) 취업분야 소개 및 직무에 대한 이해 -해당 전문분야에 취업할 위한 준비 -채용기준과 핵심역량들 통한 취업 분석 -자기소개서 준비방법 및 면접(PT, 토론, 인성)에 대한 이해
취·창업스쿨 (멘토링과 함께 하는 커리어컨설팅)	김인수 (TTS카리어그룹 대표) 월 10:00~11:50	-자기분석(신리원분석, 역량분석) -취업 및 직무분석을 통한 진로목표설정 -개인 맞춤형 커리어컨설팅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개인별 취업전략 수립 -동문 멘토링과 Network 수립
취·창업스쿨 (취업실전)	류정은 (마이크로세터이알렘 대표) 금 10:00~11:50	-경력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자기이해, 정보수집, 계획수립의 단계별 수업 -이력서작성, 면접 전략, 작업 기초 역량 개발 방법 -평생 경력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위해 필요한 관점을 갖도록 하는 것에 중점 -업무 인사 초청특강

###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과목	교수	주요내용
취·창업스쿨 (자기개발과 취업전략)	고영재 (마이크로세터이알렘 대표) 금 12:00~1:30	-자기이해(Self-awareness): 가치관, 성격, 흥미 등의 정보를 종합하여 취업의 과정에서 활용하는 원리와 방법 -기업이 이해(Company): 채용원리, 직무와 역량의 이해 -취업전략-총괄적인 정보수집, Self-Marketing(자기소개서, 이력서 작성법), 면접전략, K면접, NCS기 이해 -공통역량개발
취·창업스쿨 (스포츠 마케팅분야)	이해원 (99에스텔 대표) 월 16:00~17:50	-스포츠 마케팅 분야의 직무분석과 필요역량 이해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 채용기준 및 면접 스킬 -전문가 특강
취·창업스쿨 (공기업/공무원/고시분야)	김성환 (공기업/공무원/고시분야) 화 14:00~15:50	-직업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공무원, 공공기관 등 공직분야에 대한 이해 제고 -공직분야 입무수행에 필요한 기초 지식 소개 및 인격, 정신 배양
취·창업스쿨 (시니어 101: 100분 토론)	조우일 (취업진로지원처 객원 교수) 수 11:00~12:50	-지난 한 주 간의 시사 이슈를 주제로, 100분 동안 자유로운 토의/발표 등으로 구성하여 진행 (종이신문 활용 - 경제신문 또는 종합일간지)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궁극적으로 취업을 위한 면접전형에 대비하는 과정
취·창업스쿨 (취업/재업/화장품 분야)	김이준 (화장기독진로센터 대표) 수 09:00~10:50	-취업/재업을 구제할 시기 위한 필수단계 -실용심정으로 구성 -신인, 기업, 직무 3가지 분석을 통해 기업과 직무 이해 -진로목표설정, 커리어로드맵 설계,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면접
취·창업스쿨 (신로정보탐색과 진로준비)	백지연 (한국미디어테라피 연구소 소장) 목 14:00~15:50	대상: 직업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찾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 우왕좌왕이대네 Q. 강의를 통해 알게 될 해답은? •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줘서~책!
취·창업스쿨 (진로특강)	전유정 (광고인인신리상담센터 소장) 화 12:00~1:30	대상: 다들 취업준비인데 나 왜 아젠스타트? 해야 할 건 많은데 힘이 안나네... 추욱 Q. 강의를 통해 알게 될 해답은? • 왜 불안한 느낌고 제대로 준비를 안한 이유를 알게네! 힘내서 취업준비를 시작해!
취·창업스쿨 (자아탐색을 통한 진로설정)	김연희 (꿈돌이발달상담센터 전문상담사) 목 12:00~1:30	대상: 나는 누구일까? 나를 잘 모르겠다... 어떤 일이나 가장 잘 맞을까? Q. 강의를 통해 알게 될 해답은? • 나의 성향을 가장 긍정적으로 유지해 주자! 항상 시켜줄 수 있는 직업은 이거 아니? •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곳 어디가?
취·창업스쿨 (진로의사결정을 통한 목표설정)	이정아 (드루웨이동 청소년 상담센터) 월 14:00~15:50	대상: 과연 나의 선택이 맞을까... 진로결정을 잘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Q. 강의를 통해 알게 될 해답은? • 이해~! 이러한 이유들로 의사결정이 어려웠구나! • 어떻게 진로설정을 해야 하는지 알려줄게!